

몸사랑*

한국틴스타 소식지

*The human body
speaks the truth and
deserves respect
- Sr. Hanna Klaus*

들어가는글 _
사랑하고 또 사랑받았습니다
틴스타, 이 시대 몸으로 보여지는 희망

교육후기 _
신앙생활의 전환점이 되어 준 틴스타
쿨한 엄마의 아들 성교육
성에 대한 가치관을 바로 세우다
내 나이 칠십에 틴스타 워크숍
몸은 나입니다
불편한 진실과 아름다운 진실
모두를 초대하고 싶은 교육 틴스타
사랑, 소중함, 생명
틴스타를 통해 알게된 사랑의 진실
틴스타 교사양성워크숍을 마치며

궁금합니다 Q&A

한국틴스타 20주년 기념 전국교사모임 안내

한국틴스타 지금 _
2024 상반기 한국틴스타 수업현장
한국틴스타 소식
후원안내

*표지설명

The human body speaks the truth and
deserves respect - Sr. Hanna Klaus

몸은 진실을 말하고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한나 클라우스

사랑하고 또 사랑받았습니다

양주열 베드로 신부
(WYD 지역 조직위원회 사무국장)

안녕, 틴스타.

틴스타 교사 여러분, 어떻게 지내시지요? 올해 2월 서울대교구 사제인사 발령으로 틴스타에 많은 일을 남겨두고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 준비를 맡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인사도 제대로 인계도 없이 떠난 것 같아 마음 깊이 죄송함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 한국틴스타 대표로 임명되신 손호빈 디오니시오 신부님과 틴스타 교사 여러분에 대한 신뢰와 사랑은 더 깊어지고 새로운 희망도 마음에 지니고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틴스타 교사들이 모두 몸의 신학자가 될 때까지 틴스타와 함께 하겠다'며 틴스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제로 살아가는 저에게 틴스타는 인간이 구원의 여정을 살아가는 길이었습니니다.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인간적인 사랑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 안에서 만나고 생명을 창조하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이었습니니다.

특별히 감사드리는 것은 사랑받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었던 저의 인간적인 사랑의 갈망이 하느님을 향한 여정을 견게 만들었고, 제가 받았던 사랑을 전하고 나누면서 내가 갖게 된 이 사랑이 어떻게 하느님다운지를 확인하는 여정이 바로 틴스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의 시작에서 함께한 틴스타 선생님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특히 어려운 시기에 틴스타 사무실 업무를 감당해

준 직원들과 모든 순간에 함께 해 준 김혜정 선생님 그리고 지난 1년간 연구위원으로 오셔서 틴스타를 새롭게 해주시고 새로이 대표를 맡아주신 손호빈 신부님께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면을 빌어 이임 소식을 드리게 되어 죄송하지만, 그래도 틴스타 교사로 틴스타의 모든 활동에 협력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준비하고 있는 틴스타 20주년 전국교사 모임에 저뿐 아니라 모든 틴스타 교사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며 참여해주시기를 바라며 기도와 지지를 보냅니다. 또한 2027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세계청년대회 안에서도 틴스타의 활동이 많은 젊은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하며, 또한 성공적인 개최가 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틴스타 교사 여러분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안녕.



틴스타, 이 시대에 몸으로 보여지는 희망

손호빈 디오니시오 신부
(한국틴스타 대표)

안녕하세요, 틴스타 선생님들, 수료자분들 그리고 후원자 여러분. 저는 올해 한국틴스타 대표로 발령받은 손호빈 디오니시오 신부입니다. 2024년 한국틴스타가 20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대표가 되어 적지 않은 부담감이 있지만, 그럼에도 틴스타가 지니고 있는 좋은 가치를 믿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보려 합니다.

오늘의 한국틴스타가 있기까지 틴스타의 가치를 알아보고 한국에 도입해주신 안경렬 몬시뇰을 비롯하여 착한목자 수녀회 수녀님들, 생명위원회 그리고 앞서 대표를 맡아주신 양주열 신부님께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틴스타의 가치를 알아보고 지난 20년동안 다양한 모습으로 틴스타를 만났던 모든 분과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 후원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떤 내용을 어떻게 그리고 누가 해줘야 할지 막막해 합니다. 또 성교육을 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틴스타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보여줍니다. 성에 대한 모호한 개념과 섹슈얼리티와 분리된 시선 그리고 우리 존재의 가장 본질적인 자리인 '성'의 상품화 세대에 틴스타는 '성-사랑-생명'의 통합된 희망을 몸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틴스타를 만났던, 만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만나게 될 모든 사람이 우리 시대에 '몸'으로 보여지는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틴스타의 가치는 어떤 희망의 모습'이었나요? 저에게 틴스타는 보이지 않는 희망이 나의 몸을 통해 보여지고 있었던 하느님의 진리와 사랑의 발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교육이 필요하다'는 사람의 이야기가 저에게는 '진리가 무엇이며,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으로 들립니다.

우리는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 함께 사셨던 그리스도가 진리였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참된 행복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좋은 나침반입니다. 진리를 만난 사람은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발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몸을 통해, 몸과 함께, 몸 안에서 체험한 '진리와 사랑'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라도 그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틴스타를 통해 희망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는 틴스타와 함께 희망을 전해야 합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희망을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생님들의 선한 마음을 거울삼아, '우리의 몸'이 진리와 사랑을 담고 있음을, 생식력 자각이 그 사실을 발견시켜 줄 수 있음을 함께 세상에 전할 수 있길 희망해 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로마 8.28)

신앙생활의 전환점이 되어줄 틴스타



신준우 사도요한
(울산교구 병영성당)
210차 교사양성워크숍 수료자

“아들, 우리 본당에서 이번에 틴스타 교사양성 워크숍 하는데 한 번 안 들어 볼래?” 가족 여행을 갔을 때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어머니는 10년째 본당 주일학교에서 틴스타 교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당시 막 군대에서 전역해 시간이 남아돌던 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중학교 때 틴스타 수업을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별로 거부감도 들지 않았고, 어머니께서 오랜 시간 전념해 온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멘붕에 빠져버린 알만큼 아는 남자

그렇게 울산병영성당에서 진행한 210차 워크숍이 시작하기 불과 이틀 전에 저는 혈육 찬스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교육부터 땡땡이를 친 저는 두 번째 시간부터 워크숍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틴스타가 ‘그냥 성당에서 하는 성교육’ 정도라고 생각했고 이미 다 컸고 스스로가 알 만큼 안다고 생각했던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워크숍에 참가했습니다. 하지만 수업을 다 듣고 나서는 말 그대로 ‘멘붕’ 상태에 빠졌습니다.

‘성관계는 부부 사이에서만 해야 하는 거야?’, ‘부부 사이에서도 피임하면 안 된다고?’, ‘동성애

는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야?’ 등 제 머릿속에는 질문들이 끊임없이 피어올랐습니다. 주일학교를 꾸준히 다니면서 복사단 활동도 해왔던 저는 교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했는데, 성에 대한 교회의 입장은 그날 난생 처음 들었고, 그 동안의 제 생각과 달라서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발심도 많이 생겼고, 앞으로 남은 수업도 듣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포기하면 어머니께서도 서운하실 수도 있으니’라는 마음에 원치는 않았지만, 수료는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땡땡이쳤던 첫 번째 수업 내용을 듣기 위해 211차 서울 워크숍이 진행 중이던 명동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마음속에 품고 있던 의혹들을 하나씩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의혹을 해소하게 해준 몸의 신학

이윤이 수녀님께서 ‘몸의 신학’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셨는데, 성과 가족 사랑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 예를 들면 혼전 순결, 피임 금지, 동성애 반대 등과 같은 권고들이 왜 나오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우리의 몸에서부터 시작하여 하나 하나 짚고 넘어가 주셨습니다.

우리의 몸이 어떤 몸인지, 성(sex)은 무엇인지, 섹슈얼리티는 무엇인지, 진정한 사랑은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누구나 동의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삶에 대한 대전제인 생명의 존엄함, 몸의 소중함, 그리고 사랑의 중요성과 같은 전제들을 받아들이자, 성생활에 대한 교회의 권고가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래서 교회가 부부간의 성관계만을 인정하는구나!’, ‘피임에 대해 우려하는 이유가 있었구나’, ‘하느님 뜻에 따라 남녀의 결합만이 진정한 올바른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거구나.’ 앞선 의문들이 해소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순서대로 첫 수업부터 들었으면 자

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을 겁니다. 첫 번째 수업을 땀땀이치지 말고 제때 들을 걸 하는 후회와 함께 그동안 이런 문제들에 대해 고민해 보지 않았던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잘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산다는 것은 예수님과 닮은 삶, 우리보다 앞선 신앙의 선배들인 성인들을 본받는 삶일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인들도 모두 이 땅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인간 몸으로 사셨습니다. 인간 몸은 성적인 몸입니다. 단순히 성교육의 측면과 아울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사는 방법을 고찰하는 데 있어서 틴스타의 내용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틴스타를 통해서 나의 몸을 더 깊게 이해하고 배우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그것이 결국 신앙인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심도있게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먼 훗날, 제가 인생을 좀 더 살고 난 후 회고해 보면 이번 워크숍이 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첫 번째 교사였던 어머니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이런 뜻 깊은 시간의 기회를 주신 저의 어머니이자 첫 번째 교사였던 하영애 세실리아 선생님, 혼자 울산에서 올라와 어색하게 쭈뼛대던 저에게 먼저 따뜻한 말을 건네주신 김혜정 베로니카 선생님, 본당 워크숍 마지막 날 울산까지 내려오셔서 파견 미사를 집전해주신 손호빈 디오니시오 신부님, 그리고 워크숍 이후 이어진 주제 강의를 해주신 이윤이 에스텔 수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에게 당신 닮은 몸을 선물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쿨한 엄마의 아들 성교육



유민정
(수원교구 소하동성당)
215차 교사양성워크숍 수료자

중학생 큰아들이 처음 여자 친구를 사귀던 어느날, 학원이 끝나고 여자 친구를 집까지 데려다 주고 오겠다는 아들에게 “그래, 우리 아들 신사구나”라며 쿨한 엄마인척 했더랬다. 집에 돌아온 아들을 호기심어린 눈빛으로 초롱초롱 바라보니, 아들이 말한다. “엄마, 여자 친구랑 무슨 얘기를 할지 머릿속에 막 생각했는데 그 친구가 ‘나 팔 짱겨도 돼?’ 라고 말하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됐어. 아무 생각이 안 났어”

내 아이와 무엇을 소통할 것인가

그때의 어리석은 엄마는 다시 한 번 쿨함을 위장하여, 줄줄이 설명했다. 아직 학생이고, 어디까지 스킨십이 가능하고, 피임이 무엇이고. 그러면서 아들과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음에 나는 꽤 근사한 엄마란 자만심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 아들이 현재 고등학생이다. 이제는 TV 프로그램 ‘고딩엄빠’를 보며, 피임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임신하면 서로의 인생이 망한다는 소리를 하면서, 나는 여전히 아들과 소통이 되는 엄마라는 착각을 하고 있다.

서론이 길었지만 이것이 내가 틴스타 교육을 받으려 했던 유일한 목적이었다. 이제 곧 스무살

을 앞둔 아들에게 피임과 콘돔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알려 주어야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나는 하느님께 아주 제대로 큰 코 다쳤다!!!

얼마든지 존중하고 기다릴 수 있다는 사실이 배우면서도 놀라웠다

어떤 시선으로 '성'을 바라보는가? 사람이 사람을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나의 성은 무엇인가? 내가 상상도 못했던 질문들 속에서 가장 기본부터 알려주고 있던 틴스타! 하느님께서 주신 나의 성을 선물로 오롯이 받아들이고, 서로가 서로의 선물임을 자각한다면 서로가 얼마나 소중한 귀한 사람인지, 얼마든지 존중하고 기다려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배우면서도 놀라웠다.

피임을 중심으로 가르치는 성교육이 아닌, 성적 자기 결정권이 낙태로 끝나는 논리가 아닌, 자기 몸을 이해하고 이성을 이해하고, 자연주기법을 살아가는 과정을 알려주는 성교육이라니. 부끄러움이 교육을 받는 내내 나를 고개 숙이게 했다. 마음이 급해졌다. 얼른 빨리 알려야했다. 그동안 무지했던 엄마의 성교육에서 우리 아들을 구해내야 했다. 곧 스무살이 되니까, 제대로 가르쳐 세상에 내보내야 하니까, 급하다!!!

교육을 받고 온 다음날 아침, 마침 주말이고 온 가족이 아침식사를 한다. 잘됐다. 바로 지금이다! “아들!! 욕구가 나빠? 나쁜 거야? 물욕, 성욕. 다 나쁜 게 아니야! 그럼 뭐가 나쁜 거야?? 질서 없는 성욕이 나쁜 거야, 무질서한 욕구가 나쁜 거야” 선물, 인격, 이런 말들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아직도 나는 틴스타의 발끝조차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나보다.

**스무살 아들의 성도
완경에 가까워가는 나의 섹슈얼리티도
모두 소중하다**

하지만 낙담하지 않는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고, 유창하게 가르칠 수는 없지만, 나는 배웠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나의 여성성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이제는 스무살 아들의 성(sex)보다, 환경에 가까이 가고 있는 나의 섹슈얼리티도 관심을 갖고 돌보아 주려 한다.

인격적 성교육, 사랑받고 사랑하기! 좀 더 많은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이 좀 더 빠른 시간에 틴스타를 만나기를 하느님께 기도해 본다. 얼마나 자신들이 귀한 하느님의 선물인지 모두가 알게 되기를 소망하며. 아멘!

성에 대한 가치관을 바로 세우다

신지연 말가리다
(의정부교구 신곡1동 성당)
209차 교사양성워크숍 수료자

제가 한국틴스타 교사양성 워크숍을 신청한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에서 받은



▲ 209차 교사양성워크숍



▲ 209차 교사양성워크숍

성교육에 대한 아쉬움이 커서 더 본격적인 성교육을 받고 싶었고, 두 번째는 본당 주일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틴스타 교육을 해주고 싶어서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사랑을 주고받을 것인가
어떻게 사랑을 바라볼 것인가*

20대 초반인 저는 성에 대한 가치관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였고, 미디어에서 노출되는 개념들과 제 스스로의 신념이 뒤섞여 혼란스러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틴스타 워크숍 교육을 듣고 나서는 제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방식으로 사랑을 주고받아야 하며, 스스로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 시선과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틴스타 교육을 통해 남자와 여자의 몸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천주교 신자로서 성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알게 되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지금껏 제가 살아오면서 성을 접한 경험들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로 다시금 떠올려볼 수 있게 되어 좋았습니다.

제가 앞으로 만나는 아이들은 올바른 성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며 스스로의 성에 대해서도 잘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

습니다. 끝으로 부모님과도 나눠본 적 없는 성에 관한 대화를 다양한 연령층의 교육생들과 나눌 수 있어 좋았습니다. 각자가 알고 있는 성에 대한 지식과 경험, 느낌들이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었고 다른 부분도 있어 신기했고 어디 가서 쉽게 해보지 못할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틴스타를 통해
모두가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앞으로 자라나는 아이들과, 이미 자랐지만 스스로의 몸과 성에 대해 자각하지 못하고 있던 어른들 모두 틴스타를 통해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길 바라고 우리 모두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나이 칠십에 틴스타 워크숍

이병순 가리따스
(홍콩 한인성당)

214차 교사양성워크숍 수료자

본당에 ‘한국틴스타 교사양성 워크숍’ 포스터가 붙어 있을 때, 내 나이 칠십에 무슨 교사가 되나 하면서 지나쳤다가 그래도 본당에서 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니 함께 해보자는 마음으로 등록했습니다.

첫 시간부터 ‘몸 알기, 남성 여성의 다른 점’으로 시작한 강의는 무심코 지나쳤던 몸의 각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되면서 신체의 신비를 알게 됐습니다. 소중한 생명의 잉태는 자연주기법을 통해 소통하며 계획적인 출산이 가능하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부 간에도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말씀과 궁금해 하는 아이들의 답변은 당황해하지 말고 되물음으로써 대화하라는 말씀, 그리고 청소년들과 관련한 일부 주제들을 토론 형식으로 참여하면서, 틴스타의 교육 내용은 부모들이 꼭 받아야 할 교육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느님이 주신 선물인 몸을 소중하게 생각해야겠다는 다짐도 했습니다. 저에게는 조금 쉽지 않았지만 신선한 충격의 자리였습니다. 자녀의 첫 번째 교사는 부모입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가 교사입니다. 이 교육을 마련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 214차 교사양성워크숍

몸은 나입니다



임원 사도요한
(성 도미니코 수도회)
211차 교사양성워크숍 수료자

지금까지 성교육을 몇 번이나 들었을까요? 어렸을 때 부모님의 가르침, 학창 시절 종종 있었던 성교육, 전공 공부 중에 배웠던 몸에 대한 지식들. 그러나 제 스스로의 성과 몸에 대해서 그만큼 잘 알고 있다고 자문하면 언제나 고개를 가우뚱하게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대략 알고 있고, 내 몸을 가지고 살아온 경험이 있으니 당연히 잘 알 것 같은데 막상 타인에게 우리의 몸에 대해 설명하라고 하면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들 하니까 넘어갔던, 몸

몸에 대한 몰이해는 제 신앙의 길에서도 항상 풀리지 않는 궁금증, 숙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는 가장 기초적인 토대인 몸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없으니 하느님께서 인간을 왜 만드셨고, 우리의 몸이 왜 선물이고, 자신이나 타인의 몸을 해치는 게 어째서 그렇게까지 큰 죄인가 등등 수많은 영적 고민에 대해 깊게 생각하기보단 그냥 “그렇다고들 하니까” 라는 이유로 넘어가는 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많은 궁금증과 고민들을 한편에 묻어둔 채 어느새 잊고 있었지만 수도회 신부님의 소개로 5일간의 소중한 시간을 통해 스스로의 몸을 이해하

고, 사랑하며, 기쁨과 충만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성에 대한 수많은 담론이 화두로 떠오르고, 그만큼 어느 때보다 올바른 성과, 스스로의 몸에 대한 의문이 가득한 이때에 틴스타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분들이 자신의 몸을 총체적으로 바라보고, 온전히 사랑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일부가 아닌, 우리 그 자체인 몸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몸과, 자신을 분리합니다. 그렇기에 개인의 취향에 따라 스스로의 몸을 보다 아름답게 한다는 명목으로 바꾸기도 하며 출세나 돈을 위한 수단으로 삼기도 하고, 욕구를 해소하는 도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자신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의 존엄성은 훼손되지 않았고, 오히려 자유롭게 몸을 사용하는 것이야말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통해 인간을 존엄하고, 행복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틴스타는 몸과 우리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손끝에 작은 생채기가 난 것만으로도 우리의 몸이 아프고 마음이 우울할 수 있듯이, 마음이 아픈 것으로 인해 몸도 함께 아플 수 있듯이, 몸은 우리의 한 부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이루는 총체적인 토대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스스로의 몸이, 자신 그 자체임을 깨닫는 사람은 몸이 더 이상 쉽게 쓰고, 포기하며, 분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그 또한 존엄한 자신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존엄성을 깨닫는 사람은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고, 나와 마찬가지로 존엄한 사람인 타인 또한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아실현이 이루어지는 장소인 몸

또한 틴스타는 우리의 몸이 저마다의 역할을 통해 완전한 자기실현의 장임을 깨닫게 도와줍니다. 이성과 사랑을 속삭이고, 혼인하고, 자녀를 낳고, 독신의 삶을 통해 특별한 삶과 목표를 위해 자신을 봉헌하는 모든 것은 우리의 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몸으로 드러납니다. 자신을 이루는 모든 것이자, 자신 그 자체인 몸을 특별한 방식으로, 저마다 특별한 대상에게 내어주는 자기증여의 형태로 나타나는 우리 몸의 모습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알려줍니다.

몸은 우리 자신이고, 삶이며 꿈 자체입니다

몸은 우리의 일부가 아닙니다. 불편한 것도, 이겨내야 할 것도, 통제해야 할 것도 아니고, 쉬이 써버리듯이 무언가를 위해 간단하게 소모할 수 있는 재화도 아닙니다. 몸은 우리의 그 자신이고, 우리의 삶이며, 꿈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자동차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자동차는 언제나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폭탄처럼 두려움의 대상이 되거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고물로 헐값에 팔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소중함과 유용함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에겐 큰 가치를 지닙니다. 우리의 몸 또한 그렇습니다.

틴스타를 통해 자신의 몸과 만나기 바랍니다

스스로의 몸에 대해 궁금한 사람,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 보다 새로운 시각으로 자신의 몸을 바라보고 싶은 사람, 그 이외의 많은 분들도 틴스타를 통해 자신의 몸과 만나고, 소중함을 깨닫는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국티스타 20주년 기념 전국교사모임 및 재교육

2024년 11월 8일(금)~10일(일) | 남산 유스호스텔



반석 위에 가정을 건설하다 (마태 7.24-27참조)

가정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시대에 가정의 문화를 다시 회복하고 건설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특히 젊은 사람이나 청소년에게 어떻게 제안할 수 있을까요?

한국티스타 20주년 기념 전국교사모임은 참된 사랑의 의미와 오늘날의 혼인과 가정을 위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참된 사랑의 모습은 무엇인지 리비오 멜리나 몬시뇰을 모시고 3일간의 특별 심포지움으로 진행됩니다.

주제1. 정서적 문맹의 도전
: 범성애주의 사조 안에서 사랑의 언어를 습득하기

주제2. 몸의 신학과 성적 사랑의 문법
: 선물의 논리와 생명출산의 책임감

주제3. 취약하거나 어려운 혹은 '비정상적' 상황에 대한 사목
*세부사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리비오 멜리나(Livio Melina) 몬시뇰은 윤리신학자이자 가톨릭사제로, 가톨릭 윤리 신학과 생명 윤리의 가장 위대한 수호자 중 한 사람입니다. 1996년부터 2019년까지 로마에 있는 교황청 요한 바오로 2세 혼인과 가정 대학원에서 윤리신학 교수로 재직했으며,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원장을 역임했습니다.

주관·주최: 한국티스타

후원: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가톨릭 생명윤리연구소



20주년 전국교사모임
참가신청서 QR

불편한 진실 아름다운 진실

고은혜 로셀리나
(의정부교구 신곡1동 성당)

209차 교사양성워크숍 수료자

2023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당일, 아침미사가 끝나고 협력신부님과 대화 도중 나도 모르게 “틴스타 수업을 듣고 싶었는데 신청을 못했어요”라는 말이 튀어나왔다. 그로 인해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있던 나는 ‘한국틴스타 교사양성 워크숍’에 뒤늦게 참여하게 되었다. 이제 와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 부르심은 하느님께서 성탄을 통해 나에게 주신 고귀한 선물이었다.

그릇된 세상에서 하느님의 질서를 지켜내고 싶은 마음

사실 몸신학을 공부하고 있던 협력신부님의 영향으로 나는 몸신학 책을 읽고 있던 중이었는데, 유독 ‘창조질서’라는 단어가 내 눈에 들어오던 때였다. 하느님께서 이루신 창조활동에 피조물이 응답해야 할 ‘마땅한 질서’가 있다는 사실에 내심 기뻐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살아 계시다면 왜 세상이 이토록 고통 받으며 무너져야 하는가?’라는 절망감에 빠져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는 나만큼은 하느님의 질서를 지켜내고, 세상의 그릇된 길을 걷지 않으리라는 다짐으로 틴스타 워크숍을 시작했던 것 같다.

워크숍 강의를 들으면서 확실하게 깨닫게 된 것이 있다면, ‘몸의 질서’는 껌넘치 않아도 되는 어떤 ‘무형의 법칙’이 아니라, 하느님의 창조 목

적 안에 올바로 머물기 위해 지켜야 할 ‘하느님과의 소중한 약속’이라는 사실이었다.

고백하자면 워크숍을 듣기 전까지 나에게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선뜻 이해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싫은 그릇된 질서이자 ‘불편한 진실’이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여성과 남성의 ‘결합’은 하느님 보시기에 무엇보다 ‘완전한 사랑’이었고, 차이가 ‘일치됨’을 통하여 생명창조에 이바지하게 되는 이 탄생원리가 ‘아름다운 진실’임을 체감하게 되었다.

또한 출산은 여성이 더 이상 혼자 감당해야 하는 불합리하고 고통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여성인 ‘나의 몸’을 통하여 하느님의 창조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위대한 업적을 새롭게 알게 되었으며, ‘나라는 여성’ 그리고 ‘남녀의 연인관계’에 대하여 아주 기쁘고 벅차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무너져가는 세계에서 절망하지 않고 사랑을 꿈꾸는 선택

뿐만 아니라 미래의 동반자와 화합하고 ‘우리 몸에 새겨진 하느님의 길’을 따라 성실히 걸어가며, 태초의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하느님의 ‘완전한 사랑’을 체험해보고 싶다는 꿈이 생겼다. 나의 성별 그리고 연인관계를 ‘하느님의 선물’로 알아볼 수 있게 이끌어 준 한국틴스타의 워크숍



▲ 209차 교사양성워크숍



▲ 215차 교사양성워크숍

교육에 매우 감사드리며, 더 이상 무너져가는 세계에 대한 절망감이 아닌 가야할 길 앞에 서서 설렘을 느낀다.

많은 사람이 나처럼 틴스타 교육을 통해 '사람의 몸'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아름다운 마음으로 하느님 안에서 가꾸어 나가길 소망하며, 남성과 여성이 각자의 아름다움을 통하여 '거룩한 조화'를 이루어 나가길 기도해본다.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힘든 일정 속에서도 열심히 가르쳐 주신 많은 선생님과 봉사자분들, 신경 써주신 본당신부님께 감사드리고, 많은분의 노력과 진심이 의정부 신곡1동 성당까지 무사히 전해지도록 이끌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두를 초대하고 싶은 교육 틴스타

정다연 루시아
(수원교구 소하동 성당)
215차 교사양성워크숍 수료자

곧 사춘기가 시작될 아들과 딸이 성에 관한 질문을 하면 부끄럽기도 하고 대답하기도 어려워 대화를 피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얻고자 워크

숍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의 여정은 부모인 저 자신에게도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특히 성적인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제 자신의 '몸'과 그 안에 담긴 생명의 신비를 이해하게 되었고, 이는 저 자신과 가족에 대한 사랑과 존중을 더욱 깊게 해주었습니다.

틴스타 교육은 삶을 변화시키는 여정

교육을 듣는 내내 주변 학부모들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틴스타는 자신의 몸을 먼저 알고, 우리 삶의 본질적 주제인 '성-사랑-생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녀들에게 올바른 성의 개념과 의미 그리고 가치를 전달해 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는 자녀와 성에 관한 대화를 나누는데 용기를 줄 뿐 아니라 질문에 대한 즉답이 아닌 질문을 통한 대화를 이어 나가게 해줍니다. 즉 성인의 책임감이라는 맥락에서 통합적인 성교육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을 북돋아 줍니다. 또한 생명의 탄생과 성장을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심어주기 때문에 아이들의 가치관 형성에도 유익합니다.

부부가 함께 교육을 받는다면 서로를 향한 새로운 시선

교회가 왜 자연주기법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이 교육은 우리 모두에게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삶을 보다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을 가

르쳐줍니다. 틴스타 교육은 단순한 교육이 아닌 삶을 변화시키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특히 아빠들이 이 교육에 많이 참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부부가 함께 교육을 받는다면, 서로를 향한 새로운 시선이 생기게 되어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부부생활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더불어 부부 사랑이 보다 깊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틴스타 교육은 자녀들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모든 연령의 성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교육입니다. 우리 각자가 자신 섹슈얼리티를 이해하고, 삶의 모든 관계에서 사랑과 존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소중함을 알고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데 도움**

저는 워크숍 과정을 통해 한 사람의 소중함과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자녀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고, 자녀들이 성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배우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만약 부모가 자녀에게 올바른 '성-사랑-생명' 교육을 가르쳐줄 수 있다면, 가정은 생명의 문화를 건설하는 토대가 되고,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자녀를 둔 부모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이 교육을 통해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며 생명의 소중함을 함께 지켜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틴스타는 어느 연령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연령대에 필요한 교육입니다. 자녀만을 위한 성교육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한 인격적 성교육, 틴스타가 많은 사람에게 널리 알려지면 좋겠습니다.

사랑, 소중함, 생명

박민수 대건안드레아
(의정부교구 신곡1동 성당)

209차 교사양성워크숍 수료자

틴스타를 처음 알게된 건 신곡1동 성당의 하정용 신부님을 통해서였습니다. 신부님께서 틴스타는 일반적인 성교육과 다르며, 몸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이유와 성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성은 부끄러운 것이 아님을 교리교사로서 아이들에게 알려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권유에 의해 교육을 듣게 되었지만, 듣고 난 후 신부님께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며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 같은 마음입니다. 가장 감명 깊게 느꼈던 부분은 하느님을 가장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내 몸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질문을 받고 하느님도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뭐라고 나를 사랑하지 않았지라는 생각을 곱씹고 곱씹었던 것 같습니다.

틴스타 교육을 들으며 세 가지 단어가 떠오릅니다. 사랑, 소중함, 생명. 이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이라 생각합니다. 틴스타 교육을 통해 사랑 생명 소중함에 대해 깊이 느끼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예상치 못한 질문과
동반해주시는 선생님들**

제가 알던 것과 다른 성에 대해 알게 되고 느꼈던 것들을 아이들에게 전달해주고 싶어서 본당에서 틴스타 교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남

성을 위한 틴스타 9회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교리를 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아이들에게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공부한 것 외에 질문을 하였을 때, 대답해 주기 곤란한 질문을 하였을 때. 이런 난관에 부딪혔을 때 함께하는 교리교사들과 신부님 그리고 김혜정 선생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지금까지 저희 아이들과 함께 틴스타 교리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신곡1동 성당 남성을 위한 틴스타

마지막으로 저는 제가 틴스타 교리를 진행하면서 아이들이 꼭 얻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받고 사랑하기. 아이들이 사랑을 알고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내 몸을 사랑하고 하느님을 사랑하며 모든 이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틴스타를 통해 알게 된 사랑의 진실

전준영 알렉산드로
(중국 광저우 한인공동체)
214차 교사양성워크숍 수료자

1년 전 본당 신부님은 주일학교에서 틴스타 교육이 이루어지길 원하셨고, 때마침 서울에서 열린 203차 한국틴스타 교사양성 워크숍에 아내와 청소년교육위원장이 참여하였다. 워크숍을 수료한 아내는 홍콩 한인성당에서 열린 214차 교사양성 워크숍 참여를 추천하였다.

의구심과 기대감으로 시작한 워크숍 나의 부족함을 깨닫는 계기

우리 부부는 18년 전 자연주기법으로 첫 아이를 가졌으며, 두 딸을 키우고 있다. 두 아이를 자연주기법을 통해 얻었기에 사실 나는 자연주기법을 좀 안다는 우쭐함이 있었다. 먼저 수료한 2명의 교사가 성당에서 틴스타 교육을 하면 좋겠다는 신부님의 바람이 있었지만, 어느 정도 교사가 구성된 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셔서 '뭐가 그렇게 어렵지'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얼마나 어려울지, 혹시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을지 궁금함과 의심 그리고 기대감을 갖고 교육에 참여했다. 그런 생각으로 참여한 교사양성 워크숍은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성이 얼마나 무지한 것인지를 깨닫는 시간이었다.

하지만 첫날 교육을 들으면서는 이것이 과연 요즘 시대에 맞는 성교육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틴스타 워크숍 선배인 아내의 "일단 첫날 교육은 전체 교육에 대한 빌드업이니까 즐기고 잘 들어야 해!"라는 말이 떠올라 일단 버렸다. 지금 생각해 봐도 '버렸다'는 표현이 맞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경험자의 조언이 다 맞았다.

자녀가 부모를 닮은 것처럼 아버지 하느님을 닮은 우리 몸

몸의 신학은 쉽지 않은 강의이지만 틴스타에서 가장 중요한 바탕이다. 나 자신이 나의 몸을 사랑하고 그 몸을 온전히 내어주는 것, 같은 마음으로 받아주는 것이 얼마나 진실된 사랑을 뜻하

는지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다. 그동안 나는 잘못된 방법을 사랑이라는 단어로 착각하고 있었다. 자녀가 부모의 모습을 닮은 것처럼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이기에 하느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강의를 들으며, 하느님 닮은 나 자신과 하느님이 선물로 주신 몸의 소중함을 생각하게 되었다.

‘하느님을 닮은 우리가 이성을 유희의 도구로 삼고 있지는 아닌지’라는 성찰과 함께 피임도 생각해보게 되었다. 피임은 ‘자기 증여의 사랑’을 가로 막고, 서로에 대한 존중을 잃어버리게 하고, 이성을 이기적 유희의 도구로 여기게 된다는 것 그리고 요즘 많은 사람의 문제점이라 생각과 함께 ‘나는 어떠한가’를 생각하게 되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서 쾌락만 찾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실천일까? 내가 아이들에게 교육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깊은 고민을 갖게 되었다.

이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반영된 성인 웹툰에 쉽게 접근하는 청소년들

주일학교 학생이 성인 웹툰을 인증 없이 보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놀랐지만 대부분의 내용은 여성이 남성에게 단순히 쾌락을 느끼게 해주는 도구, 여성은 그것을 좋아하는 것처럼 묘사된 것을 보고, 내 몸을 사랑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교육이 하루 빨리 시작되길 바라게 되었다. 교육을 통해 이성은 쾌락을 느낄 수 있는 도구가 아닌 진실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성(Sex)과 젠더(Gender)에 대한 올바른 이해 필요

4일간의 교육에서 인상 깊고 기억에 남는 것 중에는 성(Sex) 정체성과 젠더(Gender) 정체성도 빼놓을 수 없다. 얼마 전 미국에 사는 지인의

말이, 고등학생 자녀의 설문조사 중에 자신의 성(Sex)를 체크하는 문항에 7가지가 있었다고 한다. 남성, 여성,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여성으로 된 트랜스젠더와 그 반대 등 7가지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제대로 된 성(Sex)의 구분일까? 남성과 여성으로 신체적인 구조로 구분이 끝나는 것을 사회적인 의미의 젠더(Gender)가 마치 성(Sex)인 것으로 혼돈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우리 세대부터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제대로 교육하는 것이 틴스타 교육의 첫걸음이다.

이 교육을 참가한 나는 그래도 행운이지만 이 행운은 나눠야 하는 것이기에 틈틈히 공부하고 준비하여 다른 사람도 이 행운을 받도록 해야겠다고 다짐해본다.



▲ 214차 교사양성워크숍

**틴스타
교사양성워크숍을
마치며**

최선희 아녜스
(홍콩 한인성당)

214차 교사양성워크숍 수료자

안녕하세요. 저는 홍콩 한인성당에서 선교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선희 아녜스입니다. 저희 분당 김종호 요셉 신부님께서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부모 입장에서, 주일학교 교사 경험으로 볼 때 필요한 교육 같다고 말씀드렸고 신부님께서는 한국틴스타에 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네"라고 말씀드렸지만, 막연한 마음으로 인터넷을 찾아보기 시작했지요. 이미 신부님께서 정보를 주신 터라 쉽게 틴스타 사무국 연락처를 찾았고 김혜정 베로니카 선생님과 연결이 되었어요.

단발성 교육이 아닌 부모가 함께 하는 성교육 틴스타를 만나다

그러나 전문 강사들이 직접 저희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해주는 저희의 바람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성교육은 며칠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먼저 부모님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추천한다.' 비록 추천이었지만 방법은 부모 대상의 워크숍 밖에 없었어요. 신부님께 말씀드리고 본당 내 워크숍을 열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어요.

한명이 들더라도 교회는 교회의 일을 한다

주보 공지 후 바로 교육문의와 참가 신청이 들어와 '와우~ 반응 좋네, 참가자 모집에는 문제 없겠다' 했어요. 교육을 주관하는 입장에서는 예상만큼의 참가인원이 나와야 마음 편히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 후로 너무나 조용한 반응에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지요. 만나는 교우마다, 주일학교 자모님들께, 구역모임에서도 이야기했어요. 그때마다 받는 질문

1. 교사양성 교육인데 저희가 들어도 되나요?
2. 난 이미 아이들 다 키웠고 다 알아요.
3. 학교에서 이미 성교육해요. 뭐가 다른가요?
4. 교육기간이 넘 길어요.
5. 아이들 픽업해야 되요..

"자녀의 첫 번째 교사는 부모예요. 우리도 성교육이 필요해요. 학교에서 하는 것과는 달라요. 진짜 아이들을 위해 필요한 교육이에요."라고 설득해 보았지만 역부족이었어요. 낙담이 되었지만 되돌리기엔 이미 늦었고 저희 신부님의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며 저도 기도 안에서 '한 명이 듣더라도 교회는 교회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힘을 얻었어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으려고 부정적인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학교에서는 피임 등 방어적 성교육만을 해요. 성윤리, 생명윤리에 기반을 둔 성교육 정말 좋을 거예요"라고 다시 이야기했고 교민지와 한국국제학교에 광고를 붙이며 힘을 내었어요.

많은 분들의 기도와 도움으로 드디어 열린 교사양성워크숍

"난 이미 아이들을 다 키웠지만 교회의 가르침이 뭔지 궁금해. 듣고 싶어."라는 긍정적인 반응과 응원도 많이 있었어요. 미사 후 공지 때 여러 차례 신부님의 권유와 구역협의회를 통한 설명, 주일학교 교사들, 사목위원들의 적극적 협조로 40명의 참가자가 모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열정적인 20명의 수료자들이 나왔어요.

첫날 참가자들의 뜻뜻미지근한 반응으로 마음을 줄이기도

교육 첫날. 뜻뜻미지근한 참가자들의 반응. 그러나 둘째 날 교육이 끝나고 여기저기에서 교육을 받길 넘 잘했어요, 교육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반응들이 직접 또는 특으로 왔어요. 휴우. 교회는 교회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게 맞아. 이제 서야 겨우 나오는 감사기도. "저를 도구로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난감한 질문으로 저를 한 번 더 깨우칠 수 있게 불쏘시개가 되어주신 우리 자매님들이 오히려

더 끝까지 적극적으로 봉사해 주시고 응원해주셨어요. 사실 이분들도 거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난감한 상황을 미리 준비하라는 도움의 마음이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지요.



▲ 214차 교사양성워크숍

교육을 마치고 간단히 꾸려진 감사파티에서 하나같이 내가 그동안 성을 왜곡된 시선으로 보고 있었고 이제 성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는 말씀들을 하셨고 더 이상은 성을 부끄럽거나 감추어야 하는 이야기가 아닌 교육에 참가했던 형제님들과는 자연스러운 대화가 되었어요.

교육을 마치며.

아들 방구석에서 뭉터기로 나오는 휴지를 보며, “아들! 무슨 생각을 하길래?”가 아닌 “우리 아들 건강하구나!”로, “딸! 넌 왜 감정 컨트롤이 안 되니?”가 아닌 “우리 딸 지금 단 거 땡기지? 예민해질 때이니 엄마가 좀 더 참아 볼게”로 먼저 아이들의 몸을 이해해 보면서 이번 교육의 목적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대중매체에서 보여주는 성, 학교에서 하는 피임 위주의 성교육으로 ‘성=생명=하느님의 선물’을 잊고 ‘세상이 왜 이렇게 변해갈까?’하는 걱정이 많았지만 틴스타 교육을 통해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고 우리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으며 또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기반을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세 사람의 힘

세상을 바꾸는 데는 세 사람의 힘으로 충분하다고. 들판에서 혼자 춤추던 사람이 둘이 되고 셋이 되었을 때, 모두가 환호하며 흥겨운 파티가 되었던 영상처럼 저희 20명의 수료자들과 함께 본성과 인격에 입각한 바른 성교육이 저희 성당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주신 김종호 요셉 신부님, 광저우 한인성당 류주화 시몬 신부님과 사목위원님들,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해 도와주신 봉사자님들과 사진 봉사자님 그리고 늘 곁에서 조용히 방향을 잡고 제 뒤통리까지 들어주신 김은희 클라라 사목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몇 달 동안 교육을 준비하고 진행해주신 김혜정 베로니카 선생님, 김정령 도미니코 신부님, 손호빈 디오니시오 신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손호빈 디오니시오 신부님의 마지막 질문 “어떤 어른으로 살아가고 싶으신가요?”를 마음으로 품으며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214차 교사양성워크숍

Q 아이가 성관계가 무엇인지, 아기가 어떻게 생기는지 궁금해 할 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성이 숨기거나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려주면 좋을까요?

A 성장과정에 있는 아이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몇 세 아이의 질문인지 궁금하네요. 그 이유는 연령에 맞춰 응답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정서적 눈높이'를 맞추는 것은 인격적 성교육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의 경우엔 '네 생각은?'와 같은 되물음의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네 생각에 성관계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 혹은 '네 생각에 아기는 어떻게 생기는 걸까?'와 같은 되물음을 통해 아이의 지식 수준과 질문의 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입장에서 정말로 궁금했던 것을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응답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안정감 있는 분위기에서 자신의 질문에 성실하게 응답하고자 하는 부모의 태도를 보고 느끼면서 아이는 '질문한 것'과 질문의 '내용'에 대해 숨겨야 할 것이라든가 부끄러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의 좋은 태도는 어떤 가르침보다 유효합니다. 자녀는 '때'마다 쌓인 신뢰 안에서 삶의 지혜를 구하고자 부모를 또 다시 찾게 될 겁니다. 되물어보고, 경청하고, 눈높이에 맞춰 보태어 주며 아이와 부모가 함께 성적인 성장과 인격의 성숙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라 믿고 한 걸음씩 걸어가 볼까요?



Q 배란일이 불규칙해서 주위에서 이틀에 한번씩 부부관계해야 한다더라, 매일 나오는 것보다 이틀에 한번씩 나오는 정자가 더 건강하고 좋다고 하는데, 카더라일까요, 팩트일까요?

A 이틀에 한 번이라는 것은 아마도 정자의 양에 초점을 맞춘 조언이었을 것 같네요. 남성의 생식력은 하루 주기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여성이 생식력 자각을 통해 자신만의 주기 양상을 인지하게 된다면 불규칙한 주기에서도 최고수정일과 그 전후 가임양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주기 안에서 부부가 함께 주기법을 실천할 수 있으며 피크규칙과 전기건조일 규칙을 적용하게 된다면 괜한 기다림을 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부부가 함께 '알고! wait & see'하는 사랑법이 바로 자연주기법이죠.



Q 남자는 주기적으로 정자를 빼주어야 한다는 말이 사실일까요?

A 틴스타 교재에서 남성 생식기 그림을 찾아보면 '정관팽대부'가 보이실거예요. 그곳에 2.5~3cc 정도의 정자가 모이게 됩니다. 그렇게 모인 정자들이 자연적으로 사출이 되려고 하는 것은 남성생식력의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질문에서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볼 것은 '주기적' 그리고 '빼줘야 한다'입니다. 어느 정도의 기간을 주기적이라고 봐야 할까요? 우리의 생식력은 일치의 관계 안에서 자기증여의 사랑을 하도록 합니다. 각자의 성소 안에서 몸의 특별한 신호를 진리 안에서 잘 읽어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한국틴스타 지금

소개특강

- 3.3 구미 신평성당(주일학교 학부모)
- 4.28 대전 공동성당(주일학교 학부모)
- 5.16 인천 박문유치원(학부모)
- 5.19 대구 형곡성당(주일학교 학부모, 교사)
- 6.1 의정부교구 5지구 어린이부 교사연합회
- 6.3 인천 성바오로유치원(학부모)
- 6.8 수원 송산새솔동성당(주일학교 학부모)
- 6.23 수원 호평성당(주일학교 학부모)



▲ 구미 신평성당 소개특강



▲ 인천 박문유치원 소개특강

인 천

- 매월 둘째주 교사모임: <기쁘하고 즐거워하여야> 책나눔

2024 상반기 한국틴스타 수업현장

분류	지역	현장명	담당교사
학교	대전	대전가톨릭대학교(성인)	이의정 신부, 이윤이 수녀, 김혜정
	부산	대양고등학교(여성)	김미정, 황은혜
		성모여자고등학교(여성)	김경숙 수녀, 김미정, 윤영지
	인천	대건고등학교(남성)	강성실, 김지윤, 박준형, 우향숙, 이병주, 임송빈, 황윤정
		인천가톨릭대학교(성인)	조정옥, 안병옥
	전주	성심여자고등학교(여성)	김혜정, 배수경, 변다정, 이수진, 이윤이 수녀, 장혜경, 조정옥, 황윤정
포항	오천중학교(소년소녀)	고연미, 문태근, 신보경, 윤경희, 이윤정, 정익주, 최병혜, 하영애	
종교 단체	구미	신평성당(성인,소년,소녀)	김현구 신부, 윤경희, 전순애, 이인숙
	대구	복현성당(소년,소녀)	박진, 홍경희
		성김대건성당(소년,소녀)	강민욱, 김자영
	울산	병영성당(성인)	하영애
	의정부	신곡1동성당(소년,소녀,여성,남성)	김기환, 최미선, 박민수, 유은수
	인천	영종성당(성인)	이병주, 임송빈
	청주	사천동성당(소년,소녀)	최윤녕, 오유석
포항	장량성당(남성,여성)	최지원, 문태근	
기관	의정부	꽃마리청소년회(소녀)	김현정



▲ 인천 대건고등학교(남성을 위한 틴스타)



▲ 구미 신평성당 자모회(성인을 위한 틴스타)



▲ 전주 성심고등학교(여성을 위한 틴스타)



▲ 대구 성김대건성당(소년소녀를 위한 틴스타)



▲ 포항 오천중학교(소년소녀를 위한 틴스타)



▲ 의정부 신곡1동성당(소년소녀를 위한 틴스타)



▲ 수원 상현동성당 (어린이를 위한 틴스타) 수료미사

2024 상반기 어린이를 위한 틴스타 수업현장

분류	지역	현장명	담당교사
성당	구미	신평성당	최예은, 유경진, 김형일, 우진숙
	대구	신서성당	이나영, 조홍범, 이태화
		성김대건성당	정대현, 김외택
	수원	상현동성당	김신야, 임형준, 지순화, 이상미, 원경희
	청주	사천동성당	강혜화, 전해경, 이정희, 조순옥
학교	인천	윤남초등학교	박준형, 황윤정
기관	의정부	꽃마리청소년회	조정란

* 어린이 프로그램 진행 교사는 정교사 자격 대상이 아닙니다.



▲ 의정부 꽃마리청소년회(12-13세 어린이를 위한 틴스타)



▲ 포항 장량성당(여성을 위한 틴스타), 교안 나눔 회의

한국틴스타
교사양성 워크숍

- 209차 의정부 신곡1동성당 워크숍(5회)
2024.1.6~20
- 210차 울산 병영성당 워크숍(4회)
2024.1.13~2.3
- 211차 서울 워크숍(5회)
2024.1.22~26 명동 영성센터
- 212차 수원 가톨릭대학교(10회)
2024.2.14~3.20
- 214차 홍콩 정하상바로성당 워크숍(4회)
2024.4.16~19
- 215차 수원 소하동성당 워크숍(8회)
2024.3.9~4.27

인사이드

- 2024년 2월 13일자로 그동안 한국틴스타 대표로 수고해주신 양주열 신부님께서 WYD 지역 조직위원회 사무국 국장으로 이동하고 그동안 연구위원으로 함께하셨던 손호빈 신부님께서 한국틴스타 대표가 되셨습니다. 두 신부님께 감사와 기도 드립니다.

홍보

- 2.17~18 도림동성당, 한국틴스타 후원자 모집을 위한 미사와 강론
- 3.19 성요셉과 함께 참된 아버지의 마음을 청하며 드리는 9일기도 영상 제작
- 4.9 가톨릭평화신문, 전주성심여고 틴스타 프로그램 관련 기사보도
- 4.11 가톨릭아시아뉴스연합, 전주성심여고 틴스타 프로그램 관련 기사보도
- 4.14 서울대교구 청년주보 한국틴스타 소개
- 가톨릭인터넷 굿뉴스 하단 한국틴스타 배너 게시 및 교사양성워크숍 상단 롤링배너 게시
- 5.27 장상연합회 열린 특강
- 5/22~6/26서울 동성중학교 6회 (김청림 신부, 권성환 부제)

- 216차 서울 워크숍(4회)
2024.6.22./6.29/7.6/7.13 명동영성센터
- 217차 인천 박문유치원 워크숍(6회)
2024.6.13.~7.18/6.14~7.19



▲ 212차 수원가톨릭대학교 워크숍

발간

- 교사양성워크숍 부교재 <배란법> 2판 1쇄 발간



▲ 배란법 교정을 보는 손호빈 신부, 개정된 배란법 표지

“틴스타 프로그램을 상업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 한나 클라우스 수녀

한국틴스타 후원 안내

한국틴스타와 함께해주세요. 후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홈페이지의 CMS 신청서를 작성하시거나 사무국으로 연락바랍니다.

우리은행 1005-804-490599

예금주: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제로페이로 후원하기도 가능합니다.
제로페이 후원금은 직불카드로 포함되어
자동으로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으므로
별도의 후원금 영수증이 발행되지 않습니다.



발행일 2024년 6월 (통권 60호)
창간호 2004년 10월
발행처 한국틴스타
홈페이지 <https://teenstar.or.kr>
주소 04537 서울시 중구 명동길 74
영성센터 사무동 401호
E-MAIL kteenstar@hanmail.net
전화 02)727-2357~9 / 02)755-2629
팩스 02)727-2243
